

J바이러스 방치하면 가금티푸스 전철 밟는다.

□ 정리/김용화 부장

「본고는 현재 닭질병이 증가일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진단해 보기 위해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남덕씨니테크 오경록 박사와 본지 김용화 편집장이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오경록 박사

계사가 많아서인지 항상 질병이 다발하고 있어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박사님이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경록 : 대표적인 질병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우선 산란계는 육성기 때에는 감보로, 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이 많고, 산란기에는 마렉, 뇌척수염, 가금티푸스가 대표적입니다. 육용종계는 마렉, 백혈이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최

▲ 김용화 . 양계질병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특정 지병이 발병을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최근에는 무창

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J바이러스에 의한 백혈이 강도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성기에는 다리관절, 마이코플라즈마, 네오바이러스 등

도 나타납니다. 육성과정에서 산란계 증추와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대부분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을 높여 질병억제를 하는데 관심을 쓸 기회를 갖지 못하여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육계는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뉴캐슬 보다는 감보로와 IB에 의한 피해가 높는데 병원균은 항시 상존하고 있다 가 항체가 낮아지면 발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김용화 : 설명을 들으니 병명도 많고, 복잡하여 어떻게 농가에서 이들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데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으로 나누어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오경록 : 국내에서 문제되는 질병은 크게 바이러스와 세균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옛날에는 계두, 빈혈증이 혼합되어 나타날 정도로 원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같은 백혈이라도 균주가 다름이 입증되어나 아주 세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명이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대부분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농장, 일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합니다. IB백신(KM-91)이 대표적 사례 아닙니까? 이같이 공공기관에서 바이러스 성격을 추적하여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연구기관에서도 통합관리보다 질병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균성 질병인데 백신이 개발된 것은 백신으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없는 것은 항생

제로 막는 것이 대안입니다. 과거에는 세균 백신은 사독이라 면역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접촉 인건비, 부작용 등으로 양축가들이 사용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균백신이 분자생물학이나 유전자 조합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사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충분한 야외 시험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금티푸스, 마이코 플라즈마가 그 사례일 것입니다.

▲ 김용화 : 좀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채란업은 가금티푸스로 장래가 없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오경록 : 물론 지금과 같이 대응을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금티푸스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퇴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질병이나 초기에는 수직감염으로 전파가 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평감염으로 확산이 됩니다.

가금티푸스균(SG)은 닭 체내를 떠나면 외부 생존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매개체(닭이, 진드기) 속에서는 예외이지만 균자체 단독으로 외부에 노출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출하를 한 계사는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하는데 아주 기술적이고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의 경우에도 중간에 건조기를 반드시 거쳐야 효과가 큼니다. 대개 육계와 종계는 all in-all out이 되니까 질병이 와도 당대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채란계의 경우에는 경영상 다일령이 농장내에 생존하고 있어 한 계사만 비운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김용화 : 가금티푸스가 발병된 농가에서 휴식기간은 얼마로 해야 효과가 있는나로 궁금해 합니다. 또한 비우고 나서 입추할 때 제대로 박멸이 되었는지 손쉽게 검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 오경록 : 가금티푸스 퇴치에 왕도는 없습니다. 수직·수평감염의 고리를 끊고, 원칙대로 청소와 소독을 하고,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긴 기간을 비워두어도 균주가 있거나 유입경로가 차단되지 않으면 입추후 또 발병을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휴식기간을 거친 계사라도 입추직전 위생검사를 하면 의외로 박멸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계사를 비우고 박멸을 할 때 유의사항은 첫째, 소독약 선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상에 맞게 약제를 4급 암모늄제와 포름알데히드, 벤졸 등 적제적소에 살포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방법상의 문제로 소독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혼합비율을 유지하여 골고루 살포해야 합니다. 혼합이 제대로 안되면 부분적으로는 맹물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입추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김용화 · 시설자동화 등으로 계사여건은 전보다 더 나아졌는데 질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경록 : 질병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계군단위가 커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서 관리가 안되니까 누적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약품도 좋아졌지만 과거 개념으로 사용을 하니까 무창계사에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병의 핵폭탄은 도계장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도계장 위생을 위해 닭어리장을 소독

하도록 지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보다 철저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옳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여름철에는 비닐 하우스로 난좌 보관창고를 지으면 살모넬라균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김용화 : 최근 종계쪽에서 J바이러스에 의한 백혈병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의 공식 균주분리 사실은 발표가 되지 않아 더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오경록 :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국내에서도 가검물에서 J바이러스에 의한 백혈병이 병리해부학 소견으로 진단보고가 있었습니다.

J바이러스도 가금티푸스와 마찬가지로 수직감염 차원에서 초기에 차단을 해야지 수평감염 수준까지 몰고 간다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백혈병으로 고전을 한 종계장들일수록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화 : 닭질병도 인간의 질병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식품위생 차원에서 닭질병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신년에 양계인을 위해 한말씀 하신다면?

△ 오경록 : 어려움이 큰데 질병까지 발병하면 더욱 큰일 아닙니까. 방역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바이오시큐리티를 생활화 하면 농가소독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에 전념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화 : 감사합니다. 양계